

공동체 소식



연중 제10주일
하느님,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
성령께서 이끄시어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6월 기도지향

- +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 +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입니다.

- 교회는 해마다 6월을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예수 성심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성심 대축일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 성체성사와 깊이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 라고 하였듯이, 예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6월 맨하탄 및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없습니다.

6월 평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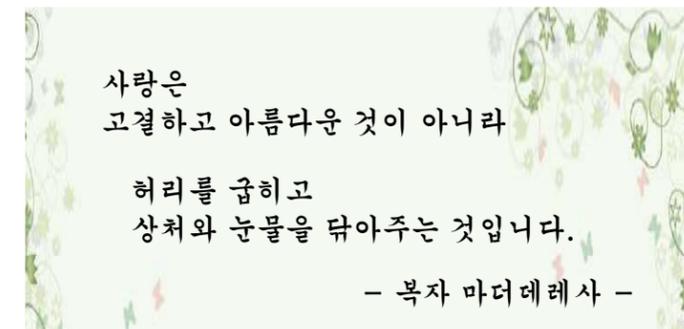
- 일시 : 6.19 (주일) 미사 후.

자비의 특별 희년(An Extraordinary Jubilee Year of Mercy) 기도 모임

- 일시: 6.5(주일) 오후 3시 (매월 첫째주)
- 장소: 스톤 채플

본당 쉼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31	220	175	200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김정원 안젤라	안광민 야고보
	이원준 요한	이재혁 바오로
다음주일	정채린 소피아	정병훈 보니파시오
	고평원 프란치스코	이재혁 바오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 요셉	김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태중 예레미야	김시연 엘리사벳

애찬 봉사자

금주	김수희, 김수연, 최선윤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사도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5/29	75명	319불	600불
(총 3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외롭고 가난한 이들의 위로자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주님 말고 의지할 데라고는 아들밖에 없는 과부의 하소연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구약의 대 예언자인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 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 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며 이 미사를 시작합시다.

성화해설

예수 성심을 응시하는 성녀 말가리다 (지퀸토 코라도, 176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예수 성심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살게 하신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목숨까지 바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예수 성심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예수 성심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은 우리가 행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7,17-24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 있소.>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1,11-19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1-17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쉐 마

바오로 사도처럼 기쁜 마음으로 복음 선포를



구약의 예언자 엘리야는 사렙타 과부를 위해 빵을 많이 하고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들을 행합니다(1열왕 17,8-24). 이방인 여자였던 사렙타 과부는 이런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야말로 진정 하느님의 사람이며, 그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 곧 예언은 참되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복음의 루카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되살려주십니다. 루카 복음은 예수님께서도 엘리야처럼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8,40-56), 빵을 많이 하시어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셨다고 전합니다(9,10-17).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두고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이루어지던 일을 예수님께서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루카 복음은 예수님이 엘리야와는 차원이 다른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하느님께서 시키는 대로 기적을 일으키고, 주님께 청해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십니다. 이를 통해 루카 복음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심을, 곧 예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백성을 찾아오신 것임을 알려줍니다.

루카 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이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도 알려줍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바오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카가 전하는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유대교를 열심히 신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자신도 2독서의 갈라티아서가 이야기하듯이 아예 그리스도교를 뿌리째 없애려고까지 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인물을 통해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음을,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오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로써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오로는 이를 두고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오면서 알고 배웠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복음을 누구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갈라 1,11-12). 성령의 이끄심으로 깨닫게 된 것으로,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바오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따랐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오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매우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오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인물을 하느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판단만을 중시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오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바오로와 같은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을 청합시다.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이성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을 지님으로써 신비에 가려져 있는 진리를 계시받아 바오로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합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며, 계시를 통해 비로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당신의 백성인 교회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되찾은 아들의 비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큰 재산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형제는 아버지 덕분에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형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동생은 반항아였습니다. 보통 형제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들은 느닷없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5,11-12

아버지는 작은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아들은 돈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아들은 한동안 돈을 물 쓰듯 쓰며 술과 쾌락에 취해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종한 생활과 함께 가진 재산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고장에는 심한 기근이 들어,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작은아들은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5,13-19

작은아들은 완전한 파멸을 이루었을 때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최악의 상태가 되니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팔이꾼이 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아들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큰아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5,20-32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 하나입니다. 인간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언제나 연민과 자비로 끝까지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죄인을 벌하기 보다는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를 용서하고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과부의 눈물

주님!
당신은 보신 거죠?

과부의 눈물 속에서

아들을 잃고 우는 과부의 한숨 속에서

주님!
당신은 보신 겁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루카 7,13)

- 임의준 신부